

文學方言(Literary Dialect) 연구의 가능성과 그 방향

이 상 규*

< 목 차 >

- I. 文學方言(Literary Dialect)의 인식과 개념
- II. 文學方言(Literary Dialect) 연구 현황
- III. 문학작품의 언어와 공통어 관계
 - 1. 고전문학 작품과 방언
 - 2. 현대문학 작품과 방언
- IV. 마무리

< 요약문 >

본고는 문학작품에 사용에 되는 방언이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지역적 배경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원전에 대한 언어학적 비평을 시도하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가 의도하는 바는 개별 작가의 작품의 원전을 바로 잡을 것과 국문학 영역과 국어학 영역의 틈새를 잇자는 것이다. 좀 거시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시학이 단순히 문학연구에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 문제로 확산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1) 고전문학 작품과 방언, 2) 현대문학 작품과 방언이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방언과 문학 사이에 논의될 허다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국문학 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해독을 위해 국어학적 연구와 국문학 적 연구의 상호 상보적인 관계를 인지하고 국문학 작품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국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문학비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경북대학교 교수

I. 文學方言(Literary Dialect)의 인식과 개념

문학작품 특히 소설작품에서 향토색이 짙은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향토적인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을 많이 활용한다. 외국의 경우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을 “可視方言(Eye Dialect)” 또는 “文學方言(Literary Dialect)”이라고 하여 小說, 詩, 戲曲 등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시도하는 예는 많이 있다.¹⁾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지역적 배경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이 연구나 원전에 대한 언어학적 비평을 시도하는 연구는 미개척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문학방언에 대한 관심은 주로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李泰俊의 『文章講話』에서는 시인이나 작가는 “言文統一”을 위해 방언을 사용하는 역기능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 50년대 이후 대학에서 국어학과 국문학연구 분야가 세분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연구는 말단지엽적인 문제거리 정도로 인식할 뿐이었다. 문학연구를 위해 국어학적 시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은 金完鎭(1975)에 와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후 김용직(1996)은 방언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지역적 방언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사회계층적인 측면에서 문학에 반영되는 방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곧 지배 계층어는 주로 문어적 특징을 갖는 반면에 기층민들의 문학에는 계층 방언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문학이 향유되던 시기를 “표준어형과 방언의 병행기 내지는 대립 공존기”로 개화기를 “구어체 중심으로 고전문학기에 언어 사용의 이중 양상 내지는 병행 형태가 극복된 시

1) Sumner Ives(1971), 「A Theory of Literary Dialect」, 『A Various Language, Perspectives on American Dialect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aul Hull Browdre, 「Jr. Eye Dialect as a Literary Device」, 『A Various Language, Perspectives on American Dialect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기”로 시대 구분의 정의를 내렸다. 어쩌면 이태준의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훨씬 발전적인 논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개화기 역시 지방문학²⁾에서는 계층방언 내지는 지역방언의 사용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문학은 방언형과 표준어형의 대립, 병행 상태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단언은 성급한 추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제 침략기에 들면서 현대문학 양식은 여전히 문학작품에 사용하는 문어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역시 지난 시대의 낡은 어투(accent)를 버리고 근대적 감각을 지닌 말을 선호하려는 의지는 매우 뚜렷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작가가 쓴 작품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이전 시대 특히 30년대 이전 시기의 작가가 쓴 작품의 원전을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 방언의 의미해석을 잘못하여 원전의 해석을 그르치게 하는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인 1920—30년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전 비판을 거쳐야 할 것이다.

正書法이 없었던 시기에 특히 방언이 대거로 반영된 작품들에 대한 교정본을 보다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원전과의 대교 및 방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텍스트를 전제로 한 문학적 비평은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상도방언을 나타내는 방언으로 된 詩 語彙를 잘못 해석하여 본래의 詩가 가지고 있는 맛깔과 전혀 다르게 현대어로 뒤바뀐 오류들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지방색이 높은 방언을 많이 활용한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 방언학자들에 의한 텍스트분석 및 확정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작가의 작품의 원전을 바로잡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과, 이와 아울러 國文學 영역과 國語學 영역의 틈새를 잇자는 제안을 하려는 좀 거시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詩學이 문학 연구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 분석이 그림의 구조를 다

2) 지방문학인 전라지방의 “판소리계 소설”이나 영남지역의 “내방가사”, “동해안무가” 등에는 개화기 시대에도 지역방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학도 언어의 구조 문제를 다룬다. 언어학이 언어 구조 일반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시학은 언어학의 한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詩學의 연구 기법들이 반드시 언어 예술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언어학이 언어예술의 모든 영역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이 글은 특히 문학 작품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홀랜더가 말한 바와 같이, “문학 연구를 포괄적인 언어학 연구에서 분리시키려 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언어학이 시학을 포용할 능력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비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일부 편협한 언어학자가 시에 대해 무능력한 것을 언어학 자체의 부적격성으로 오인한 것 때문일 것이라고 믿는다. 로만야콥슨(1989)의 말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언어의 시적 기능에 귀머거리 있는 언어학자나 언어학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언어학적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문학연구자들이 다같이 엄청난 시대 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점”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결정적으로 50년대 이후 문맹자 퇴치라는 국가교육의 목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모든 문학작품들은 “표준어”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겨우 구비 전승되는 구비문학에서만이 지역, 계층방언의 흔적이 묻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도 잠깐 뿐이었다. 20—30년대 金東仁의 <감자>, <배따라기>이나 洪命熹의 <林巨正>이나 朴泰遠의 <천변풍경> 그리고 시인으로는 李相和, 李陸史, 김소월, 김영랑, 韓龍雲, 백석, 이용악 등에서 작중 인물의 성격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기법은 방언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70년대 참여문학 내지는 노동문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창작 활동에서 방언의 사용이 정당화되는 전향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특히 시와 희곡 분야에서도보다 소설 분야에서 작중인물의 성격을 표출하는 기법으로 방언 구어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김윤식·최동호(1998)⁴⁾에서 우리나라 소설어의 어휘적 계보를 방언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고딕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부분임)

3) 로만 야콥슨 지음·권재일 옮김(1989), 『일반언어학이론』, 민음사. 참조.

4) 김윤식·최동호(1998), 『소설어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p. 1527

함경도 : 안수길, 이정호, 김남일

강원도 : 김유정, 유재용, 김종성, 최용운

경상도 : 김정환, 박경리, 오영수, 김원일, 김주영, 이문열(하근찬, 문형렬, 박일문)

충청도 : 이기영, 홍명희, 이문구, 방연웅

전라도 : 채만식, 송기숙, 조정래, 문순태, 최명희, 임철우(정강우, 한창훈)

경기도 : 염상섭, 박태원, 박완서

황해도 : 김남선, 박태준

평안도 : 선우휘, 김광식

한국문학사에서 문학작품에 있어서 方言이 출현하는 이유는 문학의 기범으로 활용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의 인식적 차이라는 기준과 정서법의 확립 유무라는 기준, 그리고 창작자의 계급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기호지방에만 유포되어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영남 지방에만 분포되어 있는 내방가사와 같은 문학 장르를 지방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구비전승되는 기층문학과 지배층의 기록문학이라는 장르의 대립을 구획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 장르로 향가는 당시로는 중앙문학 장르였으나 현재적 입장에서 보면 지방문학으로써 현재의 경주지역 방언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문학양식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색이 짙은 작품에 대해서 문학적인 분석이나 비평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언어학적인 원전 분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鄉歌의 난해한 어휘나 구 해석을 위해 경상방언을 토대로 분석한 徐在克(1995)의 연구는 매우 돋보이는 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

II. 文學方言(Literary Dialect) 연구 현황

최근 金完鎭(1998, 2000)의 일련의 연구와 그의 회갑기념논문집 『문학과 언

어의 만남』의 성과는 언어연구와 문학연구의 틈새를 좁혀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문학과 어학의 연구 관점을 접목시키려는 몇몇 국어학자들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곧 金素月의 詩에 나타난 평안방언에 대한 李基文(1998)의 「素月詩의 言語에 대하여」, 金英培(1987)의 「白石 詩의 方言에 대하여」, 金용직(1996)의 「방언과 한국문학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문제」, 李相揆(1998)의 「멋대로 고쳐진 이상화의 시」, 郭忠求(1999)의 「李庸岳 詩의 詩語에 나타난 方言과 文法意識」, 崔전승(1999)의 「詩語와 方言, —‘기롭다’와 ‘하냥’의 방언 형태론과 의미론—」, 권인한(1999)의 「만해시의 언어에 대한 보유」, 『문학과 언어의 만남』, 그 외에도 김홍수(2000)의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이태영(2000)의 「채만식 소설 <천하태평춘>에 나타난 방언의 특징」, 강정희(2001)의 「소설 속에 만난 낯선 제주방언」, 전정구(2001)의 「토속어의 활용과 관용적 표현」 등의 논문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李基文·李相揆(공편)(2001), 「문학과 방언」이라는 단권으로 이들 주요 논문을 함께 엮어 출판되기도 하였다.

국어학 연구는 국어학의 개별 영역별 이론적 체계화와 정밀화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동안 국어학의 개별적 이론적 정밀화와 체계화라는 선결과제에 힘을 쏟다가보니 자연히 인접 학문인 문학작품에 나타난 언어분석과 같은 연구 분야간의 통합화 과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어학의 영역과 국문학 영역간의 연계적인 연구 결과물, 곧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주제의 논문들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 문학과 어학의 연구 관점을 접목시키려는 몇몇 국어학자들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Ⅲ. 문학작품의 언어와 공동어 관계

1. 고전문학 작품과 방언

흔히 말하듯이 문학은 언어를 매재로 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은 한국어가 매재로 되어 있다. 국어는 여러 방언이 모여서 이루는 공통어가 있다. 이중 어떤 언어가 우리 문학의 매재로 되어 있을까? 공통어가 덜 보급된 1930년대 이전 시기 문학 작품, 곧 고전 문학의 경우에는 방언을 매재로 한 작품이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고대 소설, 가사, 시조 등을 살펴보면, 동 시기의 작품에서는 대체로 언어의 균질성이 있으며, 다소간 방언의 혼입이 있었겠지만 대체로 중부지역인 한양지역의 말씨로 되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공통어로 되어 있는 것이다.

향가, 시조, 가사, 판소리, 무가, 마당극, 고전소설, 민담, 설화, 민요에 나타나는 지역 방언에 대한 정밀한 해독을 통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원전의 판독과 더불어 이들 방언이 문학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향가 연구에 있어서 차차된 한자의 석훈(釋訓)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개개 어사의 형태가 현 방언에 어떻게 잔존되어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주에서 개성으로 방언 개선했던 지역이 옮겨진 이후 중세어에 어떻게 고대 국어가 유지되고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주방언 연구를 통한 향가 해독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완진(2000 : 4)은 향가 작품의 해독을 위한 어학적 접근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곧 “언어, 나아가서는 문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 없이는 명실상부한 해독이 기약될 수 없는 동시에, 그러한 지식이란 또 거꾸로 해독으로부터 얻어진다는 미묘한 상호의존적 상황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당혹하기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해독의 정밀화가 어학적 내지 문학적 문제를 제기해 주는 반면, 어학적 의문이, 그리고 문학적인 논의가 해독을 반성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독이 완성된 다음에 어학적 연구를 해야 한다든지, 어학적인 정리가 끝난 다음에 문학 작품으로서의 향가를 논해야 한다든지 하는 말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논의처럼 향가의 해독을 위해서는 향가의 어형이 현 방언에 어떻게 잔존해 있는지 광범위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⁵⁾ 향가에서 사용되던 어

5) 서재극(1995), “증보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형설출판사.

휘 “岳音, 星利, 七史伊, 明期, 多可支” 등에 현재의 경주방언과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月叱都(달또)“에서 어중 된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去賜里遣“에서 의문형어미가 경북 안동방언의 ‘가실리껴’에 대응된다.

고려가요에서 ‘애정지 가다가 드로라’에서 ‘정지’가 경상도 방언에서 ‘부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삭삭기’를 제주방언에서 “뜨거웠던 것이 서늘해진 모습”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잠짜간’이 ‘잠’이 명사가 아니고 제주방언에 기댄 동사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의들은 문학 작품 해석에 방언 활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경북지역의 방언형 ‘고밀개’는 중부지역 방언인 ‘고무래’보다는 훨씬 古語形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고밀개’는 어떤 어원에서 생겨난 말일까?

德으란 곰비에 반죽고

福으란 림비에 반죽고

德이여 복이라 호눌

나으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高麗俗謠 動動에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곰뽕님뽕 뉘뽕곰뽕 천방지방 지방천방

흔 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辭說時調>

고려시대에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動動>과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곰배’, ‘림배’의 ‘곰’과 ‘림’은 ‘前, 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상방언에서 앞이마가 튀어나온 사람을 ‘곰배’라 하고 또 배(船)의 앞 부위를 ‘고물’이라 하고 뒷 부위를 ‘이물’이라 한다. 이처럼 ‘고물개’의 ‘고물’ 또는 ‘곰’의 의미는 앞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며, 경남방언의 ‘당그래’는 ‘당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원 ‘고물(前)+기(접사)’에서 경북방언에서는 그대로 ‘고물개’로 남아 있으나 어중 ‘—g—’이 탈락한 ‘고무래’는 중부방언형으로 ‘당기—’와 결합된 ‘당그래’와 같은 방언형으로 분화된 것이다.

시조 작품도 필사본이 경북지역에서 나온 필사는 지역방언이 반영된 예들이

보인다.

- 가) 입아 楚 사름들아 넷 님군 어되 가니
- 나) 부협고 섬써을 손 西楚霸王 項籍이라
- 다) 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혼 허리를 버혀 니여
- 라)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야
- 마) 앓가 사름 되야 윈 몸에 짓치 듯쳐
- 바) 白雪이 즈즌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가)의 ‘입야’는 ‘이 보아’의 축약형이다. ‘이봐’ 곧 ‘여기 보아라’의 뜻이며 경상방언에서는 ‘이바’라는 방언형이 잔존해 있다. 나)의 ‘부협고’는 <해동가요>에서는 ‘浮虛코’로 표기되어 있어 ‘부허—ㄱ—(강세적 사잇소리)하고’의 줄임말인 듯 하다. 곧 “마음이 차근차근하지 못하고 들떠 서운하다.”라는 의미이다. 경북방언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협부다’라는 어휘가 있으니 음절도치에 의한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다)의 ‘혼 허리’는 “허리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경상방언에 허벅다리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한장덩이’라는 어휘와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한복판’이라는 어휘가 있다. 라)의 ‘흐더면’은 “흐—더(과거회상선어말어미)—면(구속형어미) > 했더라면, 하였으면”의 구성이다. 현대국어에서는 ‘하다’동사에서 ‘—더’가 인용절에서는 ‘—었다—라—면’ 형식으로 결합이 가능하지만 ‘—더—면’ 형식의 형태소 결합은 경북방언형에서나 실현된다. 마)의 ‘앓가’는 <진본청구영언>에는 ‘앓가야’로 표기되어 있어 감탄사 ‘아차’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앓가’를 아까, 곧 ‘조금 전’이라는 경상방언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찬(2001 : 102)에서도 ‘조금 전에’로 해석하고 있다. 바)의 ‘즈즌진’은 “줏—아#지(디 > 지)—ㄴ(관형형어미) >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눈발이 자욱해진”의 구성이다. 지금까지 ‘줏—’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⁶⁾ ‘줏—’에 대한 해석을 ‘자욱하다’가 아닌

6) * 흰 눈이 없어진 골에<고시조정해>
 * 흰 눈이 조금 남아 있는 곳에<고시조신석>
 * 자자진은 若干 남아 있는 것<역대시조선>

“조금 남아 있다”, “거의 없어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쫓—’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상방언에서 “솔에서 하얀 이밥을 잣인다.”, “핏물이 잣아진다”에서 “가라앉다”, “양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위에서 내려진 해석처럼 “흰눈이 조금 남아 있는, 곧 차차 줄어들”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 시조의 서경적 배경을 엉망으로 만들 뿐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쫓—’은 ‘빈번하다, 촉박하다, 자옥하다’ 등과 같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주 청구영언>에서 이 時調도 ‘즈자’를 ‘자옥한’으로, 경상방언에서는 ‘자주’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쫓—’을 ‘자옥하다’로 해석하여 ‘흰눈이 자옥해 지기 시작한’으로 해석한다면 훨씬 멋진 서경적 풍경이 될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 압길히 어두우니 暮雪이 자자덜다<어부사시사>
- * 여희여 오매 놀돌히 쫓더니<두시 10—3>
- * 오새 장마가 와 이래 잣노?(=요사이 장마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경상 방언>

“평무(平蕪)에 내 거든이 원근이 그림이로다.”라는 시조에서 “내 거든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내’를 ‘안개’ 또는 ‘연기(煙氣)’로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경상도 방언에 ‘내거랑내’(연기)라는 방언형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평평한 황무지에 안개 또는 연기가 걷으니 멀고 가까운 것이 그림과 같도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어너 제 이 두 글 비화 여질거든 보려뇨”에서 ‘여질거든’이라는 어형이 경상도 방언에서는 ‘여:질다’라는 분화형으로 ‘미흠(未洽)하다’라는 뜻으로 아직 사용되고 있다. 곧 ‘여질거든’은 “여지(未洽하다)—거든(선택의 접속어미) > 미흠(未洽)하거든, 못하거든, 나쁘거든”의 구성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시조에 대한 방언 어휘를 판본별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정확한 판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즈자진은 사라져 조금 남아 있는 것<고전문학독본>

가사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없었다. 단지 가사 작품을 주석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정도이다. 특히 가사 가운데 내방가사는 영남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방언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 임형택·고미숙(1990)의 『한국고전시가』, 이정옥(1999)의 『내방가사 향유자연구』 등의 작품 주석자료에 방언을 반영하는 어휘에 대한 주석을 달아 놓은 정도이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면서 기호지방에는 산문, 특히 소설류나 판소리계 가사가 널리 유포되었지만 영남지역에서는 소설류 보다 여성가사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남지방의 남성 문학은 쇠퇴되었으나 여성들의 문학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가) 웃던 부인은 참지름니고 웃던 부인은 들지름 니고<경북대본 화전가>⁷⁾

나) 곱고곱다 창끗치요 석씩하다 창끗치요/치마 옴페도 짜 다루며 바구니의 모
짜 다루니

<경북대본 화전가>

다) 아잠삼촌 잇건마는 가사는 불가혹다 <능주구씨 경자록>⁸⁾

라) 다고 밍 엽스며 잇다고 밍 잘살가 <능주구씨 경자록>

마) 어름 궁과 잉어 잡아 슈류회나 수위하며<쌍벽가>⁹⁾

7)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고도서 811.13 소 42) <경북대본 화전가>

8) 능주 구씨(綾州 具氏) 「경자록(警子錄)」은 대구지역의 명문 집안인 경주 최씨(慶州 崔氏) 최상천(崔相千) 교수(효성카톨릭대학)의 자당인 홍영숙(洪英淑) 여사가 직접 창작한 가사 「사친가」, 「교자서」, 「교부가」를 비롯한 집안에서 물려받은 「계녀서」, 「친우상사곡」, 「답장」, 「상장」, 「답상장」, 「사돈지」등 40여편을 모아 『내방교훈』¹¹⁾이라는 가사집으로 엮은 것 가운데 들어 있는 작품이다.

「능주 구씨 경자록(綾州 具氏 警子錄)」이라는 작품은 「계녀가」류의 작품과 달리 여아 교육뿐만 아니라 남아 교육을 위한 곧 자식 교육을 위한 전형적인 교훈류의 작품인 동시에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내방교훈』라는 가사집을 엮은 홍영숙 여사의 시고조모(懿高祖母)되시는 능주 구씨가 임신(壬辛), 高宗 11(1872)년에 지은 작품이다.(이정옥 : 2000, 참조)

9) 이 작품은 권영철(權寧徹) 교수가 직접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한 작품이다.(권영철(1972), 「쌍벽가 연구」, 상산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이 작품은 경북 안동군 풍천면 화회(물돌이동) 마을에 사는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의 8세손인 유사춘

- 바) 구무직헌 비움갓치 시우좁을 뽀을 바다 <진성 이씨 「회심곡」>¹⁰⁾
 사) 전생에 무삼지로 여자몸 되어나서<경대본 사친가>¹¹⁾

경북영주 지역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 가)에서 ‘웃던’은 장음을 수반하는

(柳師春)의 처이자 계초문신 학처 유태좌(柳台佐)의 자당이며 예조판서 이지억(李之億)의 차녀인 정부인 연안 이씨 부인(1737—1815)이 갑인(甲寅) 정조 18(1794)년에 지은 송축류의 내방가사이다. 이씨 부인은 「쌍벽가」이 외에도 그의 아들 태좌가 부여태수에 도임하는 과정을 그린 「부여노정기」라는 내방가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 10) 이 작품은 진성 이씨 부인이 지은 작품으로써 권영철(權寧徹) 교수의 『閨房歌辭』(身邊歎息類)에서 「리씨회심곡」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작품이다. 불행하게도 이 작품의 수집 배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유전 과정을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 작품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서 수집된 것으로 작품의 창작 년대를 확인할 수 없다.
- 11) 본 「사친가」라는 가사집은 경북대학교도서관 고도서실(소장번호 0768134)에 소장된 것이다. 가로 26.4cm, 세로 22.7cm이며, 33장인데 표지에는 「사친가」라는 서명이 세로로 기록되어 있으며, 본 가사집에는 「사친가」라는 내방가사 작품(15면)과 「제문」(16면)이 필사본으로 장철되어 있다. 이 경대본 「사친가」라는 가사집이 누가 창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전해왔는지 그리고 필사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사친가」에 이어 실려 있는 「제문」은 己卯(1915)년에 담양 전씨 맥에 시집간 의령 남씨(의령 南氏) 부인이 친정 어머님인 청주 한씨(淸州 韓氏) 부인 소상에 글을 지어 올린 것으로 친정 어머니를 그리며, 그의 죽음을 매우 애통하게 절규한 글이다. 앞에 실린 「사친가」와 뒤에 실린 「제문」과의 상호 관계는 밝힐 수 없다.

한편 이 가사집의 표지에는 “忍一時之 免百日之憂”라는 기록과 함께 “戊戌春”이라는 기록이 있다. 표지에 기록된 서체와 여러 명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본문의 서체와 같지 않기 때문에 “戊戌春”을 정확하게 창작된 년대라고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작품 가운데에 “큰낭자 하지마라 머리 밋치 썩길시라//저역사관 일척하고 너방의 가자그라//새벽사관 하지말아 든잠을 어이찌리”라는 대목을 고려하면 무술년이 1898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사친가」와 함께 실려 있는 「제문」이 이루어진 시기 ‘乙卯’년은 1975년과 1915년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료가 <바를문고> 소장본의 일부이기 때문에 ‘乙卯’년은 1915년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戊戌春”은 1898년 봄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어:’가 고모음화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표기이며, ㄱ→구개음화가 반영된 ‘참지름’, ‘들지름’이 실현되고 있다. 나)에서 ‘모짜’가 경북방언에서 ‘모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인 줄 모른다면 이 대목의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다)에서 ‘아잡삼촌’은 경북방언에서 “자식보다 나이 어린 시동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의 ‘땡’은 “땡, 계속, 지속적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경북방언형이다. 마)의 ‘궁귀’도 경상방언으로 ‘구멍’을 뜻하는 방언분화형이다. 바)의 ‘구무직힌’은 ‘구멍’의 경북 방언형인 ‘구무’를 지킨이라는 뜻이며, 사)의 ‘무삼지로’는 “무슨 죄로”라는 의미의 경상방언 분화형이다.

“이십년 키운 공이 험부고도 가소롭다”<경대본 사친가>에서 ‘험부고도’는 “허수하고 허탈하다”는 의미의 경상방언형이다. “가로도 빌시보면 도련도 곱게 하고”<경대본 사친가>의 ‘빌시보다’는 “빠꼼이 들어서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경상방언형이며, “도부장사 혼 십연하니 장바군의 털 읊고”<경북대본 화전가>의 ‘장바군의’는 “정수리”의 의미를 지닌 ‘짱바구, 짱배기’와 같은 경상방언형이다. “상가썩지 온나오니 이제 하마 죽어고나”<경북대본 화전가>의 ‘상가썩지’는 “상구, 상가, 지금까지”의 의미를 지닌 경상방언형인데 만일 경북 방언 화자가 아닌 경우 ‘험부다’, ‘빌시보다’, ‘장바군의’, ‘상가’라는 어휘의 의미를 과연 옳게 파악할 수 있을까? “불더미의 없더져서 구불면서 나와보니”<경북대본 화전가>에서 ‘구불면서’는 ‘굴리면서’라는 의미를 지닌 ‘구불다’형의 활용형이다.

이처럼 방언분화형에 대한 정확한 판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방언권 화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가령 가사 문학의 두 대가인 松江과 蘆溪는 각각 전라·경상 방언을 말하는 지방 출신이지만, 그들의 작품에서 구개음화 등, 약간의 露頭(蘆溪의 작품에서 顯著하다)를 제하고는 그들 방언을 거의 찾지 못한다. 시조의 대가 孤山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북지방에서 주로 발견되는 내방가사나 지역 필사본 시조집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많은 방언형이 나타난다.

외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유명·무명의 문인들도 공통어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국어의 공통어를 형성하고 세련시키며 또 보급한 것이다. 과거 및 현재의 문인들에게 공통어에 대한 그들의 공로를 우리는 크

게 찬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학이 모두 공통어으로써만 생산된 것은 아니다. 특히 민요와 설화 등 구비문학에 있어서 그 지방의 방언이 그대로 매재가 된다. 오늘날 채취된 민요도 그 방언을 모르고는 전혀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가)의 예에서 제주도 민요에서 한 예와 나)에서 경상도 민요의 예를 들어보면 단적으로 확인된다.

가) 방언 보난 굴묵낭 방에/절권 보난 도애낭 절귀/방아는 보니 느티나무 방아/
절긋공이는 보니 복숭아나무 절긋공이¹²⁾

나) 알강달당 서울가여/ 밤을 한 되 사여다가/ 미꿈 바진 독에다가 넣으노이/물
에 빠진 생취가/오매 가매 다 가묵고/ 다문 한 개 남은 거/깍디기는 애비 주
고/분디이(속껍질)는 에미 주고/알찌미 남았는거 /니캉내캉 갈라 목자<김의
자>¹³⁾

설화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의 해설은 방언이 그대로 나타난다. 완판본 춘향전인 <烈女春香守節歌>는 그 대표적인 예다. 거기에는 전라 방언이 상당하게 보인다. 이는 판소리가 근원 설화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설에 대한 한 방증이 될 것이다.

입과 귀를 거치는 구비문학은 방언에 대한 지식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문학이다. 문자로 표기된 소설과 가사 등에 대입하는 구비문학의 특질의 하나가 여기 있다. 한 지방의 방언을 생산된 작품을 지방 문학이라 한다면, 구비문학이야말로 지방 문학의 전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비문학을 제외한 모든 문학은 공통어로 되어 있다. 방언이 문학 용어인 구비문학은 오늘날 거의 소멸될 형편이므로 문학 매재로서의 공통어의 위치는 더욱 굳건하여진 것이라고 하겠다.

경북 동해안 무가에 나타난 방언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동해 무가 <중도독잡이 거리> 대목가운데 필요한 대목만 인용한 것이며 방언형에 대해 매우 정밀한 세주 작업을 한 이균옥(1999)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12)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 上 서울 1965, p.9

13) 김기현·권오경(1998), 『영남의 소리』, p. 7, 태학사

- 가) 중잡이 : 났다 났다 카이 어양모¹⁴⁾ 출포(出浦)¹⁵⁾가 났는 기 아이고,
 나) 중잡이 : 요분에 시후(時候)¹⁶⁾ 십년만에
 다) 악 사 : 하며.
 라) 중잡이 : 안과태평(安過太平), 부귀공명(富貴功名), 재수소망(財數所望), 소원
 성취(所願成就), 심중(心中)에 먹은 마음 뜻과 같이 이봐 주십사하고,
 마) 중잡이 : 이 제당(祭堂) 안에 와가, 진 거는 마카 돌아랴아 가가 다 처묵었
 뿌고
 바) 중잡이 : 이 도둑을 갖다가 잡으며 죽을 것이고,
 사) 중잡이 : 자 둘 사촌¹⁷⁾ 일로 오소.
 아) 열사촌 : 예. 하시더.

가)에서 ‘-카이’는 ‘-라고하니’의 방언형이며, ‘기’는 ‘것이’의 방언형이다. 나)의 ‘요분에’는 ‘요번에’의 경상도 방언형이다. 다)의 ‘하며’라는 부사어는 경북방언 화자가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또는 ‘그렇다’라는 긍정하는 뜻의 경상도 방언형이다. 라)에서 ‘이봐’는 ‘이루+어’에서 경북방언의 활음화현상을 반영하는 자료이며, 마)의 ‘마카’는 ‘전부’의 의미를 지닌 경상방언형이며, ‘처묵었뿌고’는 “처먹어버리고”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형이다. 사)의 ‘잡으며’는 접속어미 ‘-으면’에 대응되는 경북방언형 ‘-으며’를 ‘일로’는 ‘이리로’의 부사격 ‘-르 로’와 같은 방언의 격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아)는 청유형 ‘-하시더’에 대응되는 경북방언형 ‘-시더’가 확인된다.

또한 지역 마당극 대본¹⁸⁾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14) 도둑을 잡는 기관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인 미상임.

15) 출포(出捕). 죄인을 관할 구역 밖으로 쫓아가서 잡음.

16)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四時)의 절후(節候).

17) 열사촌이 악사인 ‘김명광’과 ‘박현수’로 2명이기 때문에 ‘둘 사촌’이라고 했음.

18) 정치창·김사열(1989), 『영남의 민족극』, 우리

놀이페스티벌(1989), 『진라도 마당극 대본집』, 들불

채희완·임진택편(1985), 『한국의 민중극』, 창작과 비평사

민족극연구회(1988), 『민족극대본선 1-4』, 풀빛

박효선(1994), 『금희의 오월』, 한마당

젊은이 : 문제라카마 뎀니까?

젊은이 : 선생님예. 부디, 정직하게 좀 해주이소. 그라마 저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스그들 하시소. (다시 돌아서며) 막걸리라도 갖다 놓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밧고 돌아갑니데이. 해엠요. 그라마 우리는 돌아가시디.

마당극 대사에서 ‘-카마’, ‘-니까?’, ‘-예’, ‘-이소’, ‘-라마’ 등 매우 다양한 방언 문법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마당극에서 지역 토착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훨씬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또 등장 인물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들어낼 수 있다는 극적 장점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구술 자료에서는 다양한 지역 방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언어학 자료로서는 유용하지 않지만 문학 작품의 완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방언형에 대해 세심한 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언을 조사하면, 현재의 공통어는 물론이고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 고대 어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방언 연구 자체를 위해서도 소중하지만 뜻 아니게 고전문학의 연구에 기여하는 수가 있다. 그로 말미암아 종래 잘못 해독된 부분이 수정되거나 해석이 불가능했던 어휘가해독되기도 하는 것이다. 앞으로 방언 연구가 깊어지면 그러한 일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2. 현대문학 작품과 방언

1) 소설과 방언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에 있어서도 공통어가 아닌 방언의 삽입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필자가 조사한 소설 작품의 어휘적 계보

조평화(1998), 『조평화 회곡집』, 평민사

이만희(1993), 『이만희 대표 회곡집』, 청맥

이만희(1998), 『이만희 회곡집 1-2』, 월인

19) 김재석·최재우(1996), 『이 땅은 니강 내강』, (대구지역 민족극 선집), 태학사.

를 방언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강신재, 「사랑의 묘약」, 공지영, 「착한 여자」, 구효서, 「장통따개가 없는 마을」, 김남일, 「청년일기」, 김관선, 「압록강」, 김용운, 「안개꽃」, 김인숙, 「진밤 짧게 다가온 아침」, 김지원, 「겨울 나무 사이」, 김채원, 「그 여자는 거기에 없다」,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박상우, 「시인 마태오」, 박석수, 「철조망 속 휘파람」, 박완서, 「未忘」, 박태원, 「川邊風景」, 염상섭, 「三代」

2. 경상도

강석경, 「정색지대」, 김동리, 「바위」, 김민숙, 「담배 피우는 여자」, 김영현,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김원우, 「무기질 청년」, 김원일, 「불의 제전」, 김인배, 「후박나무 밑의 사랑」,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김주영,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김춘복, 「쌈짓골」, 김태연, 「그림 같은 시절」, 김하기, 「향로없는 비행」,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 남상순, 「흰 뱀을 찾아서」, 노명석, 「용사냥」, 박경리, 「土地」, 박덕규, 「포구에서 온 편지」, 박영환, 「첫사랑」, 백시중, 「돈황제」, 백신애, 「꺼래이」, 서하진, 「라벤더 향기」, 손영목, 「밀랍인형들의 집」, 신동훈, 「달집 태우기」, 신영철, 「하늘 국화」, 양선규, 「난세일기」, 엄창석, 「태를 기른 형제들」, 유만상, 「땅끝에서」, 유시춘, 「안개 너머 청진항」, 윤정오, 「굴레」, 이남희, 「개들의 시절」, 이대환, 「조그만 깃발 하나」, 이동하, 「밝고 따뜻한 날」, 이문열, 「변경」, 이병주, 「운명의 덧」, 이석봉, 「여정」, 최학, 「外家」

3. 전라도

공선옥,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구중관, 「숨은 얼굴」, 김상렬, 「붉은 달」, 김웅, 「환상의 별」, 김한수, 「하늘에 뜬 집」, 문순태, 「고향으로 가는 바람」, 「정소리」, 박상룡, 「열명길」, 박해강, 「검은 노을」, 박화성, 「고향없는 사람들」, 백도기, 「별거벗은 임금님」, 백우암, 「모든 새들은 타고난 목소리로 운다」, 서정인, 「해바라기」, 서종택, 「백치의 여름」, 송기숙, 「자랏골의悲哀」, 송기원,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 송영, 「비련」, 송하춘, 「은장도와 트럼펫」

신경숙, 「외판방」,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오유권, 「농지상한선」, 오찬식, 「모꼬지」, 유금호, 「내사랑 풍장」, 유승규, 「농지」, 유현종, 「완행열차」,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이관영, 「바람과 도시」, 이병천, 「모래내 모래톱」,

이상락, 『동냥치 별』, 이상문, 『계단없는 도시』, 이선, 『배꽃』, 이승우, 『미국에 대한 추측』, 조정래, 『太白山脈』, 최명희, 『혼불』

4. 충청도

강준희, 『아아, 어머니』, 구인환, 『동트는 여명』, 김성동, 『집』, 김용만, 『넌 내 각시더』, 김종태, 『겨울 나비』, 민병삼, 『터널과 술잔』, 박경수, 『凍上』, 박범신, 『토끼와 잠수함』, 방영웅, 『糞禮記』, 복겨일, 『비석을 찾아서』, 안장환, 『정선아리리요』, 오탁번, 『저녁연기』, 우한용, 『불바람』, 윤대녕, 『은어남 시통신』, 이광복, 『목신의 마을』, 이규희, 『그 여자의 땀박질은 끝나지 않았다』, 이기영, 『고향』, 이동화, 『땅과 흙』, 이문구, 『冠村隨筆』, 이문희, 『흑맥』, 이어령, 『동지 속의 날개』

5. 강원도

김유정, 『소낙비』, 김종성, 『금지된 문』, 김종성, 『採炭』, 남지심, 『우담바라』, 유재용, 『침묵의 땅』, 최용훈, 『흰 겨울 검은 봄』

6. 제주도

김석희, 『이상의 날개』, 오성찬, 『한라구절초』, 오성찬, 『단추와 허리띠』,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현기영, 『順伊삼촌』

7. 함경도

김남일, 『국경』, 김성한, 『四國志』,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박연희, 『여명기』, 안수길, 『北間島』, 이정호, 『감비 천불불이』

8. 평안도

계용목, 『백치 아다다』, 김광식, 『中江鎭』, 김의정,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 선우휘, 『똥개』, 선우휘, 『불꽃』, 손창섭, 『잉여인간』, 이광수, 『선행장』

9. 황해도

강경애, 『인간 문제』, 강용준, 『광야』, 김낙천, 『大河』, 박태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미처 하지 못한 말』

경상도 방언이 반영된 김동리, 『바위』에서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우리 신 주님, 인저 이 불쌍한 년의 소원을 들어 주실라감니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에서 어미 ‘—니더’, ‘—니더’, ‘—니꺼’와 같은 경북방언의 종결어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박경리의 『土地』에서 ‘아까봐서’, ‘애러분’와 같은 예에서 ㅂ불규칙 용언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어디 씨이나’와 같은 예에서

‘쓰—이다 > 씨이다’와 같은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면에서도 김원일, 「불의 제전」에서 “오히려 큰짐 들었다고 생각해라.”에서 ‘큰짐’이나 이문열의 「변경」 “그건 글썽—야야. 차라리 내일 아침 첫차로 나가제. 이십리 길도 마딘데. 걸어보지도 않은 니가 어예 걷는다꼬...”에서 ‘마디다’라는 의미해석은 다른 지역 방언화자라면 방언사전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 “이애야, 이 왕술은 토정(土亭) 할아버지께 줘고 가시던 지팽이를 꽃아놓겠는디 이냥 자란 게란다. 그척에 그 할아버지 말썽은, 요 지팽이 앞으루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게여.....그 말썽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큼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지두 모르는 것을.....”<관촌수필>(13)

나) “그래 너는 뭇살이나 되었다더냐?”<관촌수필>(19)

“지 예미가 그러는디 제년이 작년까장은 제우(겨우)여섯 살이었대유. 그러디 시방은 잘 모르겠슈”<관촌수필>(19)

“넌가 넌 나이를 모른다 허느냐?”<관촌수필>(19)

다) “예, 위편 이논 하나 늘어서 일곱 살이라구 허던디 또 누구논 하나 먹었음께 다섯 살이라구 허거던유.”<관촌수필>(20)

라) “그렇다구 밭이다 모이(묘)를 씨유? 할아버지는 돌아가는 게 좋신모양이네유”<관촌수필>(22)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일부이다. 충청방언을 가장 많이 활용한 작가로 알려져 있듯이 이 소설을 분석하면 충청방언의 특징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생생한 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3 詩에 나타난 方言의 未解讀 問題

1) 李陞史의 詩에서

(1)의 예는 1939년 3월 『詩學』에 발표했던 <年譜>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 (1) 너는 둘다리목에 쥐었다든/할머니 핀잔이 참이라고하자
나는 진정 江 언덕 그마일에/버려진 문바지였는지몰라?

(1)에서 줄친 ‘버려진’과 ‘문바지’라는 어휘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제1련 1행의 “너는 둘다리목에 쥐었다든”이라는 시 구절이 해석되어야 한다. 1행의 시 구절은 바로 경북 안동과 이웃해 있는 영주 豊基書院 주변 마을에서 유래한 설화의 일부를 시에 활용한 부분이다. 곧 풍기서원에서 과거공부를 준비하던 어느 젊은 양반이 順興 고을의 妓女와 사랑에 빠져 아기를 낳게 되자 이 아이를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자니 본 부인이 나무랄 타이라. 서원 부근에 있는 청돌다리목에 아래에 이 아이를 버려 두는 채하고는 하인을 시켜 우는 그 아이를 주어오도록 하여 제 핏줄인 그 씨받이를 키웠다는 배경 설화가 있다.²⁰⁾ 이 설화에 유래하여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흔히 “청다리 아래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놀리기도 한다.

바로 이렇게 아이를 버릴 때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몰래 버리는, 곧 그렇게 버려진 아이라는 뜻으로 ‘문바지’가 사용되었다. ‘문바지’의 어휘 구성은 ‘문(門)+바지(접사)’와 같은 파생어 구성이다. ‘—바지’는 ‘씨받이’와 같은 접사 ‘—받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어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 (2)와 같이 그동안 간행된 시집 異本마다 다르게 교열하여 그 결과 엄청난 오류를 낳았다.

- (2)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육사시집』, 이원조편(1946), 서울출판사)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육사시집』, 이동영편(1956), 범조사)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청포도』, 이육사선생 기념비건립위원회(1946), 범조사)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광야』, 이동영편(1946), 형설출판사)

20) 이 說話의 유래에 대해서 東洋大學校 崔成海 總長이 필자에게 들려준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설화는 경북지역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청다리목”, “청다리뚝”, “청다리밑”이나 “뚝다리밑”이나에 따라 설화의 유형에 차이를 보여준다.

-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신학국문학전집』(1973), 어문각)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나라사랑』 16집(1974))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이육사전집』(1975), 정음사)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광야』(1977), 민음사)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이육사시전집』(1977), 서문당)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육사홍사용』(1977), 문화공론사)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이육사운동주』, 김종철편(1980), 지식산업사)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광야에서 부르리다』, 김종해편(1981), 문학세계사)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그칠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최동호편(1982), 시인사)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이육사박목월의 명시』, 이수화편(1983), 한림출판사)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광야에서 부르리다』, 김종옥편(1984), 혜원출판사)

원전의 ‘버려진 문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어 교합본에서는 위의 예에서처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버려진’이 ‘벌어진’으로 교열된 점. 둘째, ‘문바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 셋째, 어미 ‘—였는지’, ‘—였는지’의 사용법이 문제가 된다. 곧 ‘버려진’이 ‘벌어진’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벌어진’이 아닌 ‘버려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바지였는지’나 또는 ‘문바지였는지’인가가 문제가 된다. 시상선어말어미가 ‘—였는’ 또는 ‘—였은—’으로 교합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李源朝편(1946)에서는 ‘문바지’를 ‘가랭이가 벌어진, 입는 옷의 일종인 바지’로 해석한 것을 근거로 하여 ‘버려진’을 ‘벌어진’으로 교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문바지’가 ‘바지’로 해석될 수 없음을 앞에서도 논의 한 바와 같이 1년 1행의 시 구절이 “청다리 아래에서 주어진 아이”라는 설화의 의미 맥락과 연결하여 보면 ‘버려진 문바지였는지’는 ‘버려진 문바지였는지’로 교합되어야 한다. 그러니 ‘문바지’는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남이 이를 받아 키우는 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²¹⁾ 곧 “나는 진정 江 언덕 그 마을에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라는

21) 심원섭(1986), 『원본 이육사전집』, p. 306, 집문당.

구절에서처럼 작자 자신이 바로 영주·안동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의 주인공처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 곧 日帝治下에서 조국을 잃어버린 ‘고아(孤兒)’ 또는 ‘실향(失鄉) 意識’을 훌륭하게 표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 실증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로는 안동방언에서 ‘—바지’라는 파생접사가 매우 생산적이다. 곧 ‘성(姓)—바지’, ‘타성(他姓)—바지’, ‘씨—바지’와 같은 파생어형에서처럼 ‘문(門)’ 앞에 “버려진 아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유년기 시절 할머니가 놀리기 위해 “너는 청돌다리목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참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곧 필자 스스로가 일제에 침략당한 조국에서 어찌면 “버려진 고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이미 버려졌던 아이”이라면 과거의 사실을 회상 추측하는 ‘문바지였는지’로 교열되어야 할 것이다.

(3)의 예는 『문장』에 발표된 <絶頂>이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그런데 방언 어휘에 해석을 통한 오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방언 어휘 해석을 지나치게 건강부회(牽強附會)함으로써 원시를 훼손시킨 예도 있다.

(3)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개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강철’에 대해 권영민(1999)은 이 구절의 해석 방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곧 “문제가 되는 것은 ‘무지개’라는 말이다. ‘무지개’와 유사한 말 가운데 ‘무지기’라는 말이 있다. ‘무지기’는 대사(大蛇), 즉 큰 뱀을 일컫는 말이다. <중략> 이희승 선생의 『국어대사전』에도 ‘무지기’는 경상도 지역 방언으로 무지개를 뜻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시인은 이 시구를 ‘무지기(큰 뱀)’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상도 방언에서 ‘무지기’가 ‘무지개’를 뜻하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에 익숙한 어떤 편집자가 ‘무지기’라는 말의 본래 뜻이 ‘큰 뱀’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를 ‘무지개’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²²⁾라고 하여 이 시구를 “겨울은 독룡(강철)으로 변해버린 큰 뱀”이

22) 권영민(1999), 「이육사의 「절정(絶頂)」과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 『새국어생활』, 제9권 제1호.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상도 방언에서 “문당 강철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여기서 ‘강철’을 ‘강철이(이무기, 용으로 승천하지 못한 뱀)’로 해석하고 또 ‘무지개’를 ‘무지기(무자수, 뱀의 일종)’로 해석한 결과이다. 물론 경상도 방언에서 ‘무지기’, ‘무자수’ 등의 뱀을 지칭하는 방언이 있으나 실제로 ‘무자수’는 독한 뱀이 아니라 독이 전혀 없는 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권영민(1999)의 논의의 근거는 매우 박약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아주 흐린날 그림자 속에/떠서는 날잔는 사복이 됴세

(4)의 시는 『人文評論』에 실린 <獨白>의 일부이다. ‘사복’에 대해 심원섭(1986 : 334)은 ‘일본식 한자어로 압정(鋌)을 뜻한다고 풀이하면서 陸史의 수필인 <季節의 五行>에서 “黃金사복(鋌)을 핫트려 노흔듯하다고 感歎을 할는 저도 모르겠소.”을 인용하면서 ‘사복’의 의미를 ‘압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안동방언에서 ‘사복’ 또는 ‘사복’이라는 어휘의 방언적 의미는 위에서 논의된 ‘압정’이라는 뜻 이외에 또 ‘볼트(凹)’와 ‘널츠(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떠서는 날지 않는 사복”이란 곧 ‘볼트’와 같은 모양의 ‘별빛’의 의미로 비유된 것이다. 그러나 별빛을 ‘압정’에 비유하느냐 ‘볼트’에 비유하느냐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해당 방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근거 위에서 원본 시를 해석해야 하는 사체이라고 할 수 있다.

(5) 행랑뒤골독 회젓한 상술집엔/팔러온 冷害地處女를 둘러싸고/大學生의 지질 숙한 눈초리가/思想善導의 염탐밧헤 찢고만있다//...//거리의 主人公인 해태의 눈썹은/언제나 말가케 푸르리오노

(5)의 예는 『新朝鮮』에 실린 <失題>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회젓한’은 ‘호젓한’의 안동방언형으로 “때나 곳이 후미져서 아주 고요하다.”,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의미로 중부방언과 음상과 어형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원전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지질숙한’은 중부방언의 ‘지질—하다’ 곧 “보잘것없이 변

변하지 않다.”와 같은 안동 방언형인데 ‘지질—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리숙—하다’라는 두 어휘가 혼태(blending)되어 ‘지질—숙—하다’라는 방언형이 형성된 것이다.

‘말가게’는 중부방언 ‘맑앙게’에 대응되는 안동방언형이다. 안동방언에서 ‘맑앙다’는 ‘누렁다’, ‘빨강다’와 마찬가지로 ‘맑다’와 어간 쌍형으로 사용되기도 함으로 중부방언과 의미역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말빛깔이 다르다.²³⁾

▶ 陸史 시에 나타난 방언 문법

언어 구조 안에 숨어 있는 詩的 자원, 즉 문법의 시와 그 문학적 소산 즉 시의 문법에 관해서는 별고 비평가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고, 언어학자의 관심 밖인 경우가 많았으나, 창작가들은 이를 능란하게 구사해 왔다. 여기서는 육사 시에 반영되는 방언 문법적 현상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물론 시작품 분석으로 통해 문법의 체계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3) ‘맑다’와 ‘말강다’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 안동지역에서는 ‘맑다’와 ‘말강다’의 의미역이 불분명하다. ‘맑다’의 3—5의 의미역에서만 ‘말강다’와 교체가 불가능하지만 ‘말강다’의 1—4까지 의미역은 전부 ‘맑다’와 교체가 가능하다.

맑다 ㉮

1. 잡스럽고 탁한 것이 썩이지 아니하여 한하고 깨끗하다.(물이 맑다/말강다.)
2.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날씨가 깨끗하다.(맑게/말강게 갠 하늘)
3. 따위가 가볍고 또랑또랑하여 듣기에 상쾌하다.(이 악기는 맑은/*말간 음색이 난다.)
4.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또렷하다.(그 아나는 티없이 맑게/*말강게 자랐다.)
5.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고 박하다.(맑은/*말간 살림을 꾸려간다.)

말강다 ㉮

1. 산뜻하게 맑다.(하늘이 말강게/말게 개다.)
2. 국물 따위가 진하지 않고 묽다.(국물이 말강다/맑다.)
3. 눈이 맑고 생기가 있다.(아기는 말간/맑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4. 정신이나 의식 따위가 또렷하다.(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말강게/말게 개어 왔다.)

안동방언에서 서술형어미로 명사형의 종결형이 ‘사램이라(사람이다)’, ‘밥있다(=밥이다)’와 같이 ‘—이라’, ‘—있다’로 실현된다. 따라서 육필원고로 전하는 <蝙蝠>이라는 시에서 나타나는 방언 ‘들보(樑)라’는 서술형어미로 종결형이다. 또한 안동방언에서 의문형어미는 ‘—노/—나’와 ‘—로/—라’가 구별되어 사용된다. 곧 계사 다음에는 ‘—로(로)/—라’가 사용되며,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노/—로’가 없으면 ‘—나/—라’가 실현된다.

- (6)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했나?<年譜>
언제나 말가게 푸르리오노?<失題>
내情熱 밖에너들에 뻗길게 무엇이료?<海潮詞>
너들의 숨결이 密楡者 같이 헐데느냐?<海潮詞>

(6)의 예에서처럼 의문사가 실현되는 설명의문문에서 특히 계사 다음에 ‘—고’가 의문사가 나타나지 않는 계사 다음에는 ‘—가’가 실현된다. (6)의 예는 ‘거룩합시니’는 ‘거룩하옵시니’에서 겸양선어말어미가 어말어미화 과정을 반영하는 방언형이다. ‘거룩하옵시니 > 거룩합시니 > 거룩하시니’의 변화과정을 반영하는 예이다. (7)의 예는 폐음절 아래에서 명령형어미 ‘—어라’의 이행태인 ‘—라’가 실현된 안동방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 (7) 내 寶庫을 門을 혼드난진 그누군고?” <해조사>
어느寺院을 脫走해 온 어엿썬 青春의 反逆인고?<海潮詞>
曠野를 울니는 불마진 獅子의 呻吟인가?<해조사>
오—그것은 나에게 呼訴하는 말못할 鬱憤인가?<海潮詞>
먼동이 트기전 또다시 속삭여 보렴인가?<海潮詞>
(8) 럽리한 사람들은 다스리는神이란 항상거룩합시니 <한개의별을노래하자>
(9) 黃昏아 내 부디러운 손을 힘쫓내미라<黃昏>

안동방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서술어의 관형형에서 과거시제 ‘—앗/엇—’이 결합한다. 안동방언에서 관형절이나 내포문에서 ‘—은’과 ‘—는’은 의미차이를 보여준다.

- (10) ㄱ. 밥을 먹고 있는 사람
 ㄴ. 밥을 먹은 사람
 ㄷ. 밥을 먹었는 사람
 ㄹ. *밥을 먹었은 사람
 ㅁ. 도둑놈었은 지 모른다

(10)의 예에서 관형절에서 ㄱ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 ㄴ은 ‘밥을 이미 먹은 사람’의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다. 곧 「진행성」과 「완료성」이라는 양태적 의미가 있다. 중부방언에서는 ㄷ, ㄹ이 모두 비문이지만 안동방언에서는 ㄹ만 비문이되고 ㄷ은 가능하며, ㄴ과 동일한 「완료성」의 양태적 의미가 있다. 崔明玉(1992)도 안동방언에서 “서술어의 어간과 관형형 어미 사이에 과거 시제 ‘—았/었—’이 들어가는 것”이 안동방언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²⁴⁾

(11) 나는 진정 江 언덕 그마을에/버려진 문바지였은지몰라? <年譜>

(11)의 예에서 ‘—였은지’, ‘—였는지’의 사용법이 문제가 된다. 곧 ‘버려진’이 ‘벌어진’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벌어진’이 아닌 ‘버려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바지였은지’냐 또는 ‘문바지였은지’인가가 문제가 된다. 시상선어말어미가 ‘—였는—’ 또는 ‘—였은—’으로 교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관형절이나 내포문에서 중부방언에서는 ‘—였—+—는—’의 통합이 불가능하나 경북방언에서는 ‘—였는—’의 통합은 가능하나 ‘—였은—’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북방언에서 종결어미에서는 ‘—였는—’과 ‘—였은—’의 통합이 가능하다.

陸史 시에 특히 안동지역의 부정법의 특징적 요소들이 나타난다. ‘안’+상태동사‘는 표준어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이지만 안동방언에서는 장형부정문의 유형 다음으로 생산적인 유형이다. 안동방언의 ‘못’은 동작동사 앞에서만 나타나고 [—능력][+동작성]이라는 제약이 있다. 안동방언의 단형 부정문의 유형은

24) 김점호 구술(1992), 『베도 술한 배 짜고 밭도 술한 밭 매고』, 뿌리깊은나무 민중 자서전 6, 뿌리깊은 나무.

체언부정문과 용언부정문으로 나누어지며 용언부정문은 ‘안+동작동사’와 ‘안/아’+상태동사, ‘못/몬/모+동작동사’ ‘못하다/몬하다/모하다’로 나눌 수 있다.

(12) 새별을 차저가는 移民들의 그틈엔 안끼여갈테니<한개의별을노래하자>

(13)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기만 푸르리라<文章, 子夜曲>

바람 불고 눈보래치잖으면 못살이라<文章, 子夜曲>

비 한방울 나리잔는 그따에도<自由新聞, 꽃>

떠서는 날잔는 사복이 됴세<獨白>

(12)은 안동방언에서 동작동사이든 상태동사이든 단형부정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안동방언에서 장형부정문은 ‘—지+않다’ 즉 ‘—지+(보조사)못하다/몬하다/모하다, —지+안/아하다, —기+잖—, —지+말다’형이 있으며 이중부정으로 형과 (13)의 예에서처럼 축약형 ‘—잖/잖—’형이 실현된다. 안동방언에서 부정법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모두 단형 부정이 주로 실현되지만 접속문에서나 관형절 또는 내포문의 부정법은 장형 ‘—지+않다’의 축약형이 활발하게 사용된다.²⁵⁾ 안귀남(1998 : 97)은 “‘안+동작동사’는 장형부정문 ‘—잖—’으로 대체될 수 없으나 ‘안’+상태동사는 ‘—잖—’으로 교체될 수 있다.”라고 하여 안동방언의 부정법의 특징을 밝히고 있으나 위의 (13)에서 ‘오잖는’은 ‘안오는’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서술어의 의미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잖—’이 굴절접사인 경우와 파생접사의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치 동명사형이 ‘—음/음—’의 의도법의 소멸 이후 파생접사 ‘—□—’형과 동일형태가 상이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잖—’도 단어 구성에 관여하는 형태와 장형부정형의 형태소가 합류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

2) 李相和의 詩에서

상화 시에 나타나는 방언 어휘의 해독상 많은 오류가 있음이 지적되었다.²⁶⁾

25) 경북 안동, 봉화, 청송,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주로 실현된다.

눈이 좀 읊잔았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1992:20))

풀씨며 가지고 불이잖니껴(『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6(1992:23))

그 가운데 특히 시의 의미를 전혀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 어휘 곧 거의 아직까지 온전하게 해독되지 못한 수삼의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목거지

상화 시의 어휘 해석에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목거지’이다. 먼저 상화의 시에서 ‘목거지’라는 어휘가 나타나는 대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4) 낮에도 밤— 밤에도 밤—

그 밤의 어둠에서 스며난, 두더지 같은 산신령은
광명(光明)의 목거지란 이름도 모르고
술 취한 장님이 머—니 길을 가듯
비틀거리는 자국엔 핏물이 흐른다 !

<비음(緋音)>

(15)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疲困)하여 돌아가려는 도다.

아, 너도 먼동이 뜨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나의 침실(寢室)로>

(15) 온몸이 아니 뉘조차 깨온—아찔 하여지도록

빠져리는 좋은맛에 자스러지기는
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목거지다.

<나는 해를 먹다>

‘목거지’라는 어휘에 대해 金春洙(1981)는 “이 시는 표현이 모호한 데가 있어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우선 제1연의 “목거지”라든가 제2연 제1

26) 이상규(2001), 「이상화 시에 나타난 방언」, 『영남학』 창간호, 영남문화연구소, 경북대

행의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 등만 해도 그렇다. “목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의미 불통이고²⁷⁾라고 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어휘로 다루었다.

역시 『문학사상』에서도 ☆를 표시하여 미상의 어휘로 처리하여 오랫동안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되지 못했다. 그러나 金容稷(1974)은이 처음으로 ‘목거지’는 모꼬지라고도 발음되는 대구 지방의 사투리로서, “여러 사람이 모여 흥청대는 잔치마당”으로 풀이를 하였다.²⁸⁾ 이후 李起哲(1982)도 金容稷(1974)의 논의를 답습하여 ‘목거지’를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을 가진 경상지방의 方言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金容稷(1974)이 ‘목거지’를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확정하는 근거로 9)의 예에서처럼 “잔치, 모임, 宴會”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몰ㄷ지’라는 어휘에서 ‘목거지’가 발달되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상당히 실증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두서둘마니 쓰라 婚姻한 몰ㄷ지에 내려와서(번역소학, 10—1),

몰ㄷ지는 조조도 | 레도는 브즈런호고(번역소학, 10—32)

‘몰ㄷ지 > 몰그지 > 몰고지 > 목고지’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목고지’가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상화 시에 나타나는 ‘목거지’라는 어휘에 대해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야유회(野遊會)를 ‘모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규(2000)에서는 상화 시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는 ‘목거지’라는 어휘를 일괄적으로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고 해석 상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먼저 (14)의 <비음(緋音)>이라는 시에서 ‘낮에도 밤— 밤에도 밤—/그 밤의 어둠에서 스며난, 두더지 같은 산신령은/광명(光明)의 목거지란 이름도 모르고/술 취한 장님이 머—

27) 金春洙(1981), 「<나의 寢室로>의 내용 전개와 構造」, 『李相和硏究』, 새문사, p. 41.

28) 金容稷(1974), 『한국문학의 비평적 성찰』, 민음사, p. 132—133

나 길을 가듯/비틀거리는 자국엔 핏물이 흐른다!”에서 “광명의 饗宴이란 이름도 모르고”라고 해석을 해도 전후 이미지가 전혀 닿지 않는다.”라고 하여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한계에 도달하여 다니노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곧 ‘목전’이라는 뜻으로 곧 대구방언에서 “어떤 일이 임박하여 다되어 가는 상황을 ”가르켜 목전에 다달았다”라고 한다. 바로 이 ‘목전’은 ‘목+전(前)’의 합성어인데 ‘전(前)’ 대신에 ‘—까지, —꺼지’라는 특수조사가 결합하여 ‘목거지’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⁹⁾ 그러나 이상화의 산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목거지’라는 어휘가 그의 소설 “단장”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다. 金容稷(1974)이 제안한 ‘목거지’를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곧 필자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수정하고자 한다. 곧 ‘목거지’는 “잔치, 모임, 宴會”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몰ㄹ지’라는 어휘에서 ‘목거지’가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9) 이상규(2001), 『이상화시전집』, 정림사.

“어떤 일이 급박하거나 다되어 가는 상황에 이름”이라는 뜻을 지닌 대구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를 결정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를 8)의 예인 <나는 해를 먹다> 라는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온몸이 아니 났조차 깨온—아절 하여지도록/빠져리는 좋은맛에 자스러지기는/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목거지다./”에서 “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목거지다.”라는 대목을 “보기 좋게 잘도 자란 果樹園의 饗宴이다.”라고 해석할 경우 “보기 좋게 자란”과 “饗宴”이 서로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거지’라는 어휘를 일괄적으로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방언에서 “목거지 차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목이 있는 곳까지 차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고비.”, “어떤 일이 한계에 도달한 고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바로 아직까지 해독되지 못했던 상화 시에 나타난 詩語 ‘목거지’는 바로 “어떤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고비.”, “어떤 일이 한계에 도달한 고비.”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6—8)의 예들의 시에 나타난 ‘목고지’를 “饗宴, 잔치마당, 모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고비.”, “어떤 일이 한계에 도달한 고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매우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햇채, 해채

(17)의 ‘쫓아가다’라는 의미의 ‘쫓쳐가도다’를 ‘쫓겨가도다’로 교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방언형 ‘햇채’를 ‘海菜’로 자칫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 ‘햇채’는 대구방언에서 ‘햇추’, ‘히추’와 같은 분화형이 있는데 ‘더러운 물’의 의미로 ‘햇채구덩이’이라면 ‘더러운 물구덩이’ 또는 ‘시궁창’이라는 뜻이다.³⁰⁾

(17) 아, 가도다 가도다 쫓아 가도다.

있음 속에 있는 간도(間島)와 요동(遼東)별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쫓아 가도다.

진흙을 밥으로 햇채물을 마셔도

마구나 가졌더라면 단잠은 얹앨 것—

<가장 비통(悲痛)한 기옥(祈慾)>

이와 같이 경상방언인 ‘햇채’, ‘해채’라는 어휘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못함으로 (개벽), (형설사), (정음사), (그루), (미래사)에서 간행 한 이상화 시집에 전부 ‘햇채물’을 그대로 ‘햇채물’로 교열하여 ‘海菜물’ 곧 “바다 해조류로 만든 국물”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여왔다.

이 ‘햇채’는 金亨奎(1980)에서 뜻을 밝혀 놓은 ‘수채(下水溝)’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곧 ‘햇채’란 대구방언에서 ‘햇추’, ‘히추’와 같은 방언분화형이 있는데 “더러운 개울 또는 시궁창물, 수채(下水溝)”이라는 뜻이다. ‘해채구덩이’라면 ‘더러운 물구덩이’ 또는 ‘시궁창’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진흙을 밥으로 햇채물 곧 시궁창물을 마시더라도 마구나 가졌더라면 단잠이라도 얹앨 수 있었을 터인데”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지의 이미지 전개상에도 적합하다.

이와 같이 ‘해채’라는 시어휘에 대한 해석이 불명료함으로써 <오늘의 노래>라는 원전의 시 (17)의 대목이 (18)와 같이 전혀 시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열된 것이다.

30) 金亨奎(1980), (한국방언연구), p. 23, 서울대학교출판부. ‘해채[hæ̃tʰæ]’(충남, 금산), (경남, 양산, 함천), ‘해추[hæ̃tʰu]’(경북, 의성)를 ‘수채(下水溝)’ 항목의 방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 (18) 붓끄러워라 제 입으로도 거룩하다 자랑하는 나의 몸은
 안을수업는이괴롭을피하러이즈러
선웃음치고하품만하며해채속에서 조을고있다,
 그러나아직도—
 월사이업시올머가는自然의變化가 내눈에내눈에보이고

<오늘의 노래>

- (19) 부끄러워라 제 입으로도 거룩하다 자랑하는 나의 몸은 안을 수 없는 이
 괴롭을 피하러 잊으려
선웃음치고 하품만 몇 해째 속에서 조을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 사이 없이 옹아가는 자연(自然)의 변화(變化)가 내 눈에 내 눈에 보이고

<오늘의 노래>

- (20) 부끄러워라 제 입으로도 거룩하다 자랑하는 나의 몸은 안을 수 없는 이
 괴롭을 피하러 잊으려
선웃음치고 하품만 하며 시궁창 속에서 조을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 사이 없이 옹아가는 자연(自然)의 변화(變化)가 내 눈에 내 눈에 보이고

<오늘의 노래>

(19)는 〈대구문인협회〉 교열한 것인데 원시의 “선웃음치고하품만하며해채속에서 조을고있다,”를 “선웃음치고 하품만 몇 해째 속에서 조을고 있다.”라로 전혀 엉뚱하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교열함으로써 시의 문맥이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목의 ‘해채’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한 경우 (20)과 같이 교열할 수 있는 것이다.³¹⁾

③ 검아

31) 이상규(2001), 『이상화 시전집』, 정림사.

상화 시에서 비교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출현하는 어휘로 ‘검아’라는 어휘가 있다. 그런데 이 시 어휘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쉽게 ‘검(劍)’의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온 것이다.

(21) 아, 가도다 가도다 쫓아 가도다.

잊음 속에 있는 간도(間島)와 요동(遼東)별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쫓아 가도다.

진흙을 밥으로 시궁창물을 마셔도

마구나 가졌더라면 단잠은 엇델 것을—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찍

차라리 주린 목숨 빼앗아 가져라 !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

(22) 어둔 밤 말없는 돌을 안고서

피울음을 울었더라면 설움은 풀릴 것을—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찍

차라리 취한 목숨 죽여버려라 !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

(23) 가서는 오지 못할 이 목숨으로

언제든지 헛웃음 속에만 살려거든

검아 나의 신령을 돌맹이로 만들어 다고

개천 바닥에 썩고 있는 돌맹이로 만들어 다고.

<극단(極端)>

(24) 헛 웃음속에 세상이 잊어지고

꼬꾸울리는데 사람이 산다면

검아 나의 신령을 돌맹이로 만들어다고

제 사리의 길은 제 찾으려는 그를 죽여다고

<無 題>

(21)에서 (24)의 시에서 나타나는 ‘검’을 과연 ‘劍’의 의미 정도로 해석해도 될 일인가? (22)의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이라는 시의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찍”에서 “사람을 만든 칼아”로 해석해서는 전혀 앞뒤의 이미지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25) 卽熊津고마누르也<용비어천가 3—15>, 고마경 敬<신증유합 하—1>, 고마 건 虔<신증유합 하—3>, 고마흠 欽<신증유합 하—9>, 그고마흐시던바를恭 敬하며(敬其所尊)<내훈 1—37>, 고마온바를보고(見所尊者)<소학언해 3—10>, 곰웅熊곰비<훈몽자회 상—19>, 곰과 모딘비암과<석보상절 9—24>

상화 시에 나타나는 ‘검’은 단군 왕검(王儉)으로서 겨례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대상신(神)을 상징하는 것이다. (25)의 예에서처럼 ‘고마’가 ‘고마 > 곰, 검, 감, 금’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원이 분화 된 것인데, ‘검’은 동물로 곰(熊)을 상징하는 토tem신이며, 지모신(地母神)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5)에서 “고마—곰—熊”로 어형이나 그 의미가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호완(1996)은 ‘검’을 ‘玄武’, ‘熊神’ 계열의 물신(水神)으로 이해하고 있다.³²⁾ 어쨌든 ‘검(儉)’이 곰을 상징하는 상징신(象徵神)으로 해석할 경우 (21)—(24)의 예문에서 시구절의 이미지 연결은 매우 순조로와 진다.

IV. 마무리

정확한 문학 작품의 해독과 올바른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는 상호 필연성과 상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국어학으로부터 그리고 국어학적 연구가 문학 연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국어학이 과학적 형식주의에 발목이 잡혀 형이상학적 사유의 울타리인 국문학 분야와도 오랜 시간동안 결별하고 계속, 그 울타리 너머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문학 작품에 대한 해독의 정밀

32) 정호완(1996), 『우리말의 상상력』, 정신세계사.

화가 국어학적 내지 국문학적 문제를 제기하여 주는 반면, 국어학적인 의문이, 그리고 국문학적인 논의가 국문학 작품의 해독을 반성케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독이 완성된 다음에 국어학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든지, 국어학적인 정리가 끝난 다음에 국문학 작품으로서의 해석해야 한다는 논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곧 국문학 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해독을 위해 국어학적 연구와 상호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영역의 침범이라는 불문을 때문에 연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국문학 작품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국어학도의 계명을 거스르거나 국문학 연구자들에게 주제 넘는 일이라고 지적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문학 작품 텍스트에 대한 정밀한 작품의 문학 세계를 보다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흔히 말하듯이 문학은 언어를 매재로 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은 국어가 매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어에는 여러 방언이 있고 또 공통어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방언과 문학 사이에 논의될 문제가 허다하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결어로 대신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지나친 전공 세분화의 경향에서 인접 학문 영역간의 학문적인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방언, 방언과 문학, 가시방언, 문학방언

참고 문헌

- 곽충구(1999), 『李庸岳 詩의 詩語에 나타난 方言과 文法意識』, 『문학과 언어의 만남』, 태학사.
- 권영민(1999), 『삼백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읍내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새국어생활』 제 9권 2호, 여름.

- 권인한(1996), 「음운자료로서의 만해시의 언어」, 『문학과 언어와의 만남』, 신구 문화사.
- 권인한(1997), 「萬海詩의 언어에 대한 補遺」, 『한국어문학논고』, 태학사.
- 김영배(1987), 「백석시의 방언에 대하여」, 『한실이상보박사환갑기념논집』
- 김용직(1996), 「방언과 한국문학—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문제」,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 김윤식·최동호(1998), 『소설어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홍수(1984), 「시의 언어학적 분석 시론」, <어학> 11, 전북대.
- 김홍수(1985),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국어문학> 25, 전북대.
- 김홍수(1997), 「박태원의 창작여록 『표현묘사 기교』에 대한 어학적 소론」, 『한국어문학논고』(최태영 외), 태학사.
- 배석범(1987), 「시에 나타난 逸脫의 유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석범(1997), 「<님의 침묵>의 ‘괴루—’의 정체를 찾아서」, 『國語史 研究』, 태학사.
- 안병희(1984), 「우리나라의 방언과 국문학」, 『국어와 민족문화』, 집문당.
- 양병호(1992), 「영랑시 연구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 양병호(편, 1997), 『오매 단풍들것네』(원본 김영랑 전집), 한국문화사.
- 李基文(1983), 「素月詩의 言語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1. 신구문화사.
- 이상규(1998), 「멋대로 고쳐진 이상화의 시」, 『문학사상』 9월호, 문학사상사.
- 이상규(1999), 『경북방언 문법연구』, 박이정.
-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 이상섭(1984), 『님의 침묵의 어휘와 그 활용구조』(용례색인), 탐구당.
- 이상섭(1985), 「몽치 언어학적으로 본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 —<님의 침묵의 용례색인>을 예로 들어—」, 『인문과학』 제 5집.
- 이승훈(1986), 「김영란 대표시 20편 이렇게 읽는다」, 『문학사상』 86.10.
- 이익섭(1975), 「시어의 파격성과 조어 문제」, 『心象』 Vol 3. no.7.
- 이태영(1993), 「<봉계집>과 19세기말 전북 화산 지역어」, 『국어문학』 28호.
- 이태영(1997), 「언어 특징, <채만식 문학연구>」, 국어문화회 편, 한국문화사.

- 임용기(1988), 「광죽말의 자리토씨」, 『기전문화연구』 17집, 인천교육대학.
- 임지룡(1997), 『인지 의미론』, 탑출판사.
- 전정구(2000), 『언어의 꿈을 찾아서』, 평민사.
- 정효구(1985),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시학적 분석」, 『관악어문 연구』 제10집.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99), 「詩語와 方言, —‘기롭다’와 ‘하냥’의 방언 형태론과 의미론—」, 국문연구 40.
- 허형만(1996), 「영랑 김윤식 연구」, 국학자료원.

※ 이 논문은 2001년 10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1년 11월 2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1년 12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